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small>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small>		<h1>보도자료</h1>	http://www.kisti.re.kr
2016. 3. 11.(금) 조간(온라인은 3. 10. 12:00) 이후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본원): 대외협력실 이석 042 - 869 - 0960 / 강동기 0967 문의: 임석중 정보기반실 선임연구원 1888 /			
배포번호 : 2016-5 배포일자 : 2016.03.10.(목)	매수 : 보도자료 2매 (참고자료 5매)	배포처 : 대외협력실	

2020년 향한 글로벌 학술정보유통 로드맵 공유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 2016 KESLI 전자정보 포럼, 3월 14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려 -
- 국내외 오픈엑세스 전략과 사례 소개 및 향후 발전 방향 공유 -

- 2020년까지의 새로운 글로벌 학술정보유통 생태계 구축에 대한 로드맵을 공유하기 위해 국내 전자정보 업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 지난 10 여 년간 상업출판사는 학술정보 구독 비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어 도서관을 비롯한 수요기관들은 전자정보 구독 가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학술지의 위기’라는 말이 회자되고 그 대안으로 오픈엑세스 운동이 대두되었고, 최근 막스플랑크연구소가 발표한 「학술정보 유통 로드맵 2020」(참고자료1) 이 오픈엑세스를 확대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실행 계획을 획기적으로 모색하여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한선화, 이하 KISTI)이 3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KESLI(케슬리)*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2016 KESLI 전자정보포럼’을 개최한다.

*KESLI(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 : 케슬리 컨소시엄은 KISTI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자정보를 합리적으로 공동구매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2000년 구성되었다. 2015년 현재 산학연 645개 기관이 참가 중이며 대학 및 정부출연연의 92%가 참가 중이다. 케슬리 참가기관 전체의 한 해 전자정보 구독비용 절감효과는 약 8,666억원(2015년 기준)에 이른다.

- 행사는 ‘오픈엑세스와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서정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을 시작으로 ▲글로벌 오픈엑세스 컨소시엄 사례 ▲학

술정보 유통 로드맵 2020 ▲KESLI 전자정보 구독비용과 오픈엑세스(OA) 비용 분석 ▲포항공과대학교의 국내 오픈엑세스 추진 사례 등으로 구성되며 전 세계의 오픈엑세스 최신 동향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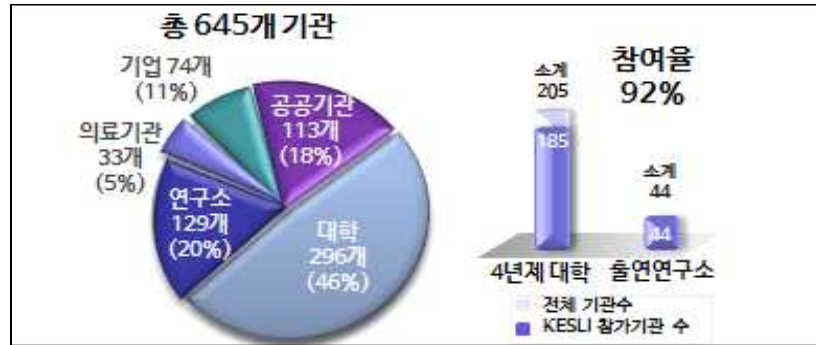
- 특히 스위스의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과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오픈엑세스 컨소시엄 동향과 미래 전략 로드맵을 소개하고,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전자정보 업무 관계자들이 모여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한다.
 -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오픈엑세스 모델의 벤치마킹 사례이기도 한, SCOAP3 오픈엑세스 컨소시엄은 46개국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연구도서관들이 참여하여 구독비용을 전환하여 오픈엑세스 비용을 분담 중이다.
 - 국제 오픈엑세스 컨소시엄이 구성된다면 국내 기관 역시 참여 필요성이 매우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논의가 이번 행사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선화 KISTI 원장은 “학술지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픈엑세스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KESLI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학술정보 유통의 변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끝)(이어서 참고자료)

[참고자료1] KESLI 컨소시엄 현황 및 성과

□ KESLI 컨소시엄 구성 현황

- KESLI 컨소시엄은 2000년 구성되어 2015년 현재 산·학·연 645개 기관이 참가중이며, 주요 학술·연구기관인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92%가 참가하고 있음



- 산출근거 : 4년제 대학¹⁾, 정부출연연구소²⁾ KESLI 참가여부 전수조사
- 미참가기관은 전자정보 수요가 적거나 신생 기관임 (종교, 예술대, 특수대 등 22개 대학)

○ KESLI 컨소시엄으로 구독가능한 전자정보

- KESLI에서는 전 세계의 학술연구 분야 전자정보를 발굴하여 공급하고 있음. 2015년 KESLI를 통해 구독가능한 정보량은 아래와 같음

유형	정보량	컨소시엄 수 *
전자저널	47,579 종	80 개
전자책	60,712 권	21 개
웹DB	400 종	48 개
프로시딩	36,619 건	8 개
표준	18,502 건	2 개
기타	114,376 종	19 개

* 1개 컨소시엄에 2종류 이상의 콘텐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있음

1) 4년제 대학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알리미 등록 대학 (2015년 기준) 중 산업대, 사이버대, 기타대를 제외, 분교 제외
 2) 정부출연연구소 기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11개 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19개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23개 기관 등 총 44개 기관

□ 성과

KESLI 컨소시엄을 통한 범 국가적인 학술연구정보 가용량 증대 및 학술논문정보 공동활용

○ KESLI 참가기관의 이용가능 정보량 증가 14.6배 증가

기관유형	KESLI 이전 인쇄학술지 평균 구독종수*	KESLI 이후 전자학술지 평균 라이선스 종수**	이용가능 학술지 증가	
			종수	증가율
대학	382종	4,035종	3,653종	1,057%
연구소	158종	2,877종	2,719종	1,820%
기업	101종	1,540종	1,439종	1,524%
의료기관	257종	2,154종	1,897종	837%
공공기관	141종	1,667종	1,525종	1,179%
평균	208종	3,040종	2,832종	1,461%

* 과학기술정보 유통체계 구축 2001년 사업보고서 기준

** 2015년 KESLI 컨소시엄 참가신청 기준 (KESLI 시스템 참가신청 정보 참조)

- 전자정보 공동구매를 통한 국내 산학연 기관의 구독비용 절감 기대효과 : 8,666억원으로 추정 (2015년 계약 기준)
 - 공동구매로 인한 Buying Power 형성 : 2015년 KESLI 컨소시엄 품목 평균 인상을 2.7%
 - ※ 전 세계 전자정보 컨소시엄 중 참가기관 규모 10위 (국제도서관컨소시엄연합 ICOLC 정보 기준)
 - 정가 대비 컨소시엄 공동구매로 인해 8,66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추산 (2015년 컨소시엄 계약 3,505건 전수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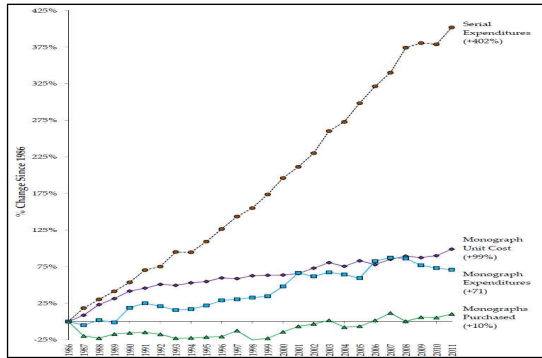
□ KESLI 현황 및 이슈

○ 상업출판사의 학술지와 논문 독점으로 구독 조건 협상의 한계가 있음

- KESLI는 국내 645개 기관이 집결하여 단체 협상을 하고 있으나 상품 특성상 대체재가 없는 독점 상품이므로 가격 협상에 한계가 있음
- 이는 KESLI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적인 상황임. 북미 지역 연구 도서관 연합체인 ARL³⁾ 자료에 따르면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조사기간 중 연속간행물(학술지) 지출비용은 402%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또한 KESLI 컨소시엄 전체 지출비용이 전 세계 STM 정보 시장 규모 (\$25.2 Billion)⁴⁾ 0.5% 수준으로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3) ARL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 북미지역 121개 주요 연구 도서관들의 연합체

4) STM Report 2015 (http://www.stm-assoc.org/2015_02_20_STM_Report_2015.pdf)



[그림] 단행본과 학술지의 가격 인상 추이
(출처: ARL 홈페이지)

○ 컨소시엄 참가기관 체감 혜택 부족

- KISTI는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대국민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NDSL, 기관 맞춤형 NDSL Open Service, 인쇄저널 소장정보 공동활용 등 국가 차원의 정보공동활용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치 보다 참가기관이 체감하는 혜택이 부족한 상황임.

○ 대학 도서관의 예산 악화와 대학도서관연합회의 영향력 강화

- 지난 십여년간 대학은 도서관 전용 예산을 없애고, 대학 차원에서 예산을 분배하고 있어 도서관 예산은 자연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최근 몇 년간 반값등록금 등 대학 예산이 담보 또는 감소 상태에 이룸에 따라 대학 도서관의 정보구매 예산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감소한 상태임
- 2000년 후반 발족한 대학도서관연합회는 이러한 대학 도서관들의 상황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음 (2013년 대도연 해외전자정보컨소시엄 발전방안 워크숍, 2015년 KESLI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요청, 2015년 대학도서관 회의 개최 등)
- 특히 2015년에는 대학도서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하였던 대학 사서가 KESLI 운영위원장으로 선정되면서 컨소시엄 조건협상 과정에 과도한 영업 정보 요구, KESLI 컨소시엄 정보 유출 등으로 정보 공급사들과의 마찰이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보 공급사들이 컨소시엄에 탈퇴하여 업체 주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상황이 발생함.

□ 글로벌 동향: 막스플랑크연구소 2020 로드맵 주요 내용

- 2015년 12월 현재 Web of Science* 기준 오픈액세스(OA) 점유율 14%
 - * 세계적인 논문 평가 및 인용 색인 전문 출판사인 ISI사에서 발행하는 인용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로서 Science Citation Index,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3개 주제 분야의 8,500여종의 학술저널에서 230종 이상의 주제분야 110만 여건의 레코드와 2,300만여건의 인용정보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로서 등재된 저널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학술지로 인정되고 있음.
- 2016년 실행 계획
 - 추가 합의 및 전환을 위한 토의(1월-9월)
 - NCP와 거버넌스 구축(1월~8월)
 - EOI 서명 수집(B12~B13)
 - APC 시장 기능을 위해 요구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연구(3월~B13)
 - 데이터 평가 지원: 출판물 성과와 할당, APC와 재정 흐름(by 2019)
 - 이니셔티브 내부 데이터 공유(by B13)
 - 선택된 출판사들과 선도적인 OA 모델(by B13)
 - 구독 예산의 재할당 개시(8월~)
- 2017년 실행 계획(B13)
 - 검토 및 경험 공유
 - 새로운 집단 및 이해관계자 통합(by 2019)
 - 이니셔티브 확대와 새로운 후원자 발견(by 2019)
 - 전 세계적 데이터 공유(by 2020)
 - 출판사들과 협력 확대(by 2020)
 - 라이선스 계약에서 구독 요소 사라짐(2017~2020)
 - 거버넌스 체제 구축(B13~2020)
 - 유연한 이행을 위한 준비(B13~2020)
- 2020년 Web of Science 기준 OA 점유율 90% 이상

[참고자료2] 「2016 KESLI 전자정보 포럼」

- 행사주제 : 2020년을 향한 글로벌 학술정보유통 로드맵
- 행사목적 : 최신 글로벌 학술정보 유통 전략을 공유하고 KESLI 참가 기관 대상으로 오픈엑세스 변혁에 대한 의견 수렴
- 일자/장소: 2016.3.14(월), 예술의 전당(서울) 오페라극장 컨퍼런스홀
- 참석대상 : KESLI 컨소시엄 참가기관 관계자 150명 내외
- 행사 프로그램

3. 14(월)

시 간	내 용	발표자
10:30~11:00	등 록	
11:00~11:10	개회사	한선화 원장 / KISTI
11:10~12:00	오픈엑세스와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서정욱 교수/ 서울대
12:00~13:30	중식	
13:30~14:30	글로벌 OA 컨소시엄 선행 사례	알렉스 켈스 / CERN
14:30~15:30	글로벌 학술정보 유통 로드맵	랄프 쉬머 / 막스플랑크 연구소
15:30~16:00	휴식	
16:00~16:30	KESLI 컨소시엄 구독과 OA 예상비용 분석	김정환 실장 / KISTI
16:30~16:50	국내 OA 컨소시엄 참여기관 사례	권태훈 사서 / 포항공과대학교
16:50~17:30	종합토론	참석자 전체